

1회에만 11득점 한 이닝 '최다'

다저스, 내셔널리그 챔스 3차전서
1회초 홈런 3방 터뜨려 11득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1, 2차전에서 내리 패했던 LA 다저스가 3차전에서 뜨거운 화력을 선보였다. 1회부터 11득점을 폭발,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득점 신기록을 썼다.

다저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애들랜타 브레이브스와 NLCS 3차전에서 1회초 홈런 3방을 터뜨리는 등 11점을 쓸어들었다.

선두 무키 베츠의 내야 안타와 코리 시거의 좌익수 방면 적시 2루타로 가볍게 선제점을 올렸다.

이어 저스틴 터너와 맥스 먼시는 내야 땅볼에 그쳤다. 2아웃 이후 다저스의 타선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윌 스미스의 중전 2루타로 한 점을 보냈고, 코디 벨런저의 볼넷으로 연결된 2사 1, 2루에

서 작 피더슨이 좌중월 스리런을 날렸다. 스코어는 5-0.

후속 에드윈 리오스는 연속 타자 홈런을 쳤다.

크리스 테일러가 볼넷으로 풀라내자 애들랜타는 선발 카일 라이트를 내리고 그랜트 데이턴을 마운드에 올렸다. 그러나 다저스의 방망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베츠는 바뀐 투수 데이턴에 볼넷을 얻어내 2사 1, 2루를 연결했고, 시거의 중전 적시타로 7-0으로 달아났다. 터너의 몸에 맞는 공으로 계속된 2사 만루에서는 먼시가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그랜드슬램을 작렬했다.

다저스의 무시무시한 1회초 공격은 스미스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마무리됐다.

11득점은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득점이다.

종전 기록은 10득점으로 총 네 차례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서 애들랜타를 상대로 1회 10점을 뽑아낸 바 있다.

애들랜타는 1년 만에 한 이닝 최다 실점의 악몽을 반복한 셈이다. /뉴시스



LA 다저스 맥스 먼시(오른쪽 두 번째)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애들랜타 브레이브스와 NLCS 3차전에서 1회 그랜드슬램을 터뜨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호날두 이탈리아로 돌아가... 격리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14일(현지시간) 소속팀이 있는 이탈리아로 돌아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날두가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항공편을 이용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이탈리아 토리노로 이동했다"며 "호날두는 자택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호날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상태가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전날 호날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호날두는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참가를 위해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였다.

호날두를 제외한 포르투갈의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호날두 없이 스웨덴과의 네이션스리그 홈경기에 나선 포르투갈은 디오구 조타의 2골 1도움 맹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승리를 거뒀다. /뉴시스

'한국 체육의 미래, 출발점에 서다'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체육인대회, 비대면 개최
체육회 유튜브 통해 생중계

대한체육회가 '함께하는 스포츠포럼'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대한민국체육회 100주년 기념 2020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출발점에 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국내 체육환경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고, 체육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합한 중장기 실천방안 및 국민 복지 차원의 대한민국 체육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정성숙 부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를 주제로 대

한민국 체육 100년의 과거를 되돌아본다.

이어서 SBS 권중오 기자와 경희대 김도균 교수가 각각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와 기회',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체육계 현안 및 대한민국 체육 미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행사 현장 및 온라인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체육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 인원을 최소화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들이 질의·응답하는 등 참여자 중심의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임시 휴원' 태권도원, 오늘 재개원

"방문시 방역수칙 준수해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임시 휴원했던 태권도원을 10월 16일 재개원한다.

태권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임시 휴원에 들어간 바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16일 재개원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및 태권도원 운영에 관한 안내를 했다.

먼저 태권도원 입장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고객센터에서 비접촉식 온도계로 체온을 점검하고, QR 체크인을 통해 방문자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태권도원 상설공연장 등의 장소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발열 상태를 지속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해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T1 공연장·순환버스·모노레일 등 실내는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대비 50%만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진행되는 태권도원 상설공연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후 4시 공연을 추가하는 등 거리두기 준수와 밀집도가 분산된 상태에서 상설공연을 관람할 수 있



도록 조치했다. 매회 상설공연 직후에는 T1 공연장 내부 분무 소독도 실시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니, 방문객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개방·분산·거리두기'가 된 태권도원에서 가을을 느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문 업체를 통한 태권도원 시설물 내·외부 소독과 자체 분무 방역, 손잡이 청소·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전북본부